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얼음 깨기

'나의 한 주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날마다 기대되지요?
이번 주에는 '나의 한 주'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1_ 지난 한 주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_____ 입니다.
- 2_ 하루를 보내는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 3_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마음/감정을 나누어주세요.

교회행사

3월

- 5일 상반기 양육훈련 시작
부부 사랑학교 시작
- 11일 어와나 입단식
- 26일 성례식

4월

- 2일 종려주일/성찬식
- 3-8일 고말기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 9일 부활 주일

경배 찬양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빚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선교지

[홍성준 선교사]

미국

1. 도시 선교사로서의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하도록
2. 거주 중인 도시의 90%인 인도, 아프리카, 몽골, 콩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와 전략 주시기를
3. 이민 와서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소식

1. 성례식

3월 26일 주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함께 신청하여 주세요.

2. 옷 기증

굿월 센터에서 옷을 기증 받습니다.

_기증 장소 : 굿월센터 2층, 교회 식당, 사무실

3. 오렌지 TFT 모집

오는 5월,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실 분께서는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한문장 큰 울림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대답이 주어진다.

- 프란시스 웨퍼 -
(라브리 공동체 설립)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대가 :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당한 보상과 대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1시간 일했다면 1시간에 대한 대가를, 12시간 일했다면 12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지요. 개인 공헌 정도에 따라 잔치 석상에 앉는 순서까지 달랐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이와 같은 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19:27)**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 사역을 함께 할수록,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잊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과 더운누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공훈의 나라'임을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내용]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중에는 종으로 팔린 사람도 많고, 일정한 직업 없이 날뎠팔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 (일꾼의 평균적인 하루 품삷)조차 벌기 어려웠었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오전 9시(제삼시), 정오(제육시), 오후3시(제구시), 오후5시(제십일시)에 품꾼들을 각각 부르십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대략 오후 6시 정도에 주인은 품꾼들에게 샅을 주고자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품꾼들은 더 받을 줄로 기대하지요. 그러나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14절)라고 말합니다.

1_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잊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품꾼의 노동으로 포도원을 잘 경작하여 이윤을 얻어냄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주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나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 받는 자녀 vs 일하는 일꾼
중, 어디에 더 가깝게 생각하는지 나누어봅시다.**

2_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공훈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각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지 품꾼들이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보상의 논리에 취해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잊은 공동체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신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겠지만, 종일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 나는 나 자신을 몇 시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아침 / 9시 / 12시 / 3시 / 5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_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고, 자신들과 이방인을 차별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 공평, 법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질서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죄인을 향한 **공훈이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질문]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해야할 공훈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나눔

주일 말씀 [꿀찌를 위한 나라 순서가 아닌 은혜 / 마태복음 20: 1-16]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목장 식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불러주심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하나님 나라

보상과 대가의 세상 논리가 아닌, 공훈과 자비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품고 함께해야할 그 한 사람 기억하게 하시고, 공훈의 마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